

제4회 한일지사회의 공동발표문

21세기 국가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의 패러다임은 관(官) 주도에서 민(民) 주도로,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즉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에서 지방분권형 행정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외교와 더불어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일 양국간에는 이미 민·관·학을 불문하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지방분권이 진전될수록 지방정부나 민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상호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높은 '자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이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한일 양국의 지사들은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이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오늘 제4회 한일지사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의 '지방분권 현황과 전망', '자치단체 교류 현황 및 교류의 역할과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한일지사회는 지방분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양국의 실태와 과제를 인식하고, 각자 추진하는 개혁을 지지한다.
- 양국은 세계의 조류가 되고 있는 지방 중심의 분권형 국가 정립을 공동목표로 삼고, 지방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한다.
- 한일지사회는 양국의 시·도와 도·도·부·현간 상호 교류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문화, 관광, 경제, 산업, 스포츠 등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 한일지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5회 한일지사회'는 2010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8년 4월 10일

회장 김 진 선

대한민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아소 와타루

일본국 전국지사회